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하느님 말씀을 따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경축 이동
2021. 09. 19. (나해) 제2286호

제주보



김호성당
에서..
+Bernard 2021. 7. 30

김호성당 | 그림 _ 서원만 베르나르도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제1독서 지혜 3,1-9 **화답송** ◎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제2독서** 로마 8,31-39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행복하리니 하느님의 성령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리라. ◎ 알렐루야. **복음** 루카 9,23-26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하리라.

선택



대구가톨릭대학교 의료원 행정처장 | 배상희 마르첼리노 신부

오늘 강론의 주제는 '선택'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아니 평생을 좌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줄곧 선택을 합니다.

무엇을 먹을지, 입을지, 어디를 갈지, 누구와 함께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등등 ...

눈뜨고 감을 때까지 모든 것이 선택의 연속입니다.

좀 더 참되고 선하고 아름답고 의미 있는 것을 선택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자랑스러운 신앙의 선조들을 기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주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배반할 것인가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나의 선택이 잘못되면 헛되어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바쳐 진리이신 주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선조들은 자신들의 선택에 대해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을 선택하는 것만이 영원한 행복과 평화, 기쁨을 얻게 되는 길임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이러한 확신을 갖게 만들었을까요?

신앙의 선조들이 가진 확신은 신앙생활을 통해 얻은 체험에서 나왔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기도하면서 영적인 평화와 위로를 체험했습니다.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면서 행복과 기쁨을 체험했습니다.

이 지상에서 하늘나라를 미리 체험하면서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 모두에게 매일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십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 걸고 선택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선택의 순간, 갈등하게 될 우리는 신앙의 선조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와 사랑의 계명 실천을 통한 신앙의 확신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환난도, 역경도, 박해도, 굶주림도, 헐벗음도, 위험이나 칼도 결코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에서 떼어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의 모든 순교자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필문**

유다 (창세 37; 38; 44,18-34; 49,8-12)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 강수원 베드로 신부

유다(히브리어 ‘예후다’)라는 이름은 ‘(주님을) 찬송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성경에선 예수님의 두 제자들(‘타대오’라고도 불리는 유다, 유다 이스카리옷) 같은 개인뿐 아니라, 민족(유대인)이나 나라 전체(남왕국 유다, 기원전 933-587년)를 지칭하는 중요한 이름입니다. 물론 이 이름은 야곱의 열두 아들들 중 넷째인 유다에게서 비롯된 것이지요. 마태오 복음사가는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다.”(마태 1,2)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 야곱을 거쳐 맏이 르우벤이 아닌 넷째 유다를 통해 이어졌음을 증언하는데요, 과연 유다는 야곱이 죽기 전에 베푼 축복에서 위엄 있는 사자에 비유되며 왕홀과 지휘봉을 가진 영광스러운 임금의 형상으로 예언된 바 있습니다(창세 49,8-12). 하느님의 축복이 맏아들들을 통해 전해진다고 믿었던 고대 사회에서, 맏아들이 아닌 넷째 유다가 이런 넘치는 축복을 받은 것은 예삿일이 아닙니다.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난 유다는 비록 넷째 아들이지만, 아버지의 소실 빌하를 범하여 눈 밖에 난 맏형 르우벤(창세 35,22)이나 속임수와 폭력으로 스켄인들을 살육하여 아버지를 불행에 빠뜨린 둘째와 셋째 형 시메온과 레위(34,25-31)를 대신하여, 아버지 야곱의 신뢰 속에 진작부터 맏아들과 같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창세기의 거대한 요셉 이야기(37; 39-50장)는 온통 죄수에서 일약 이집트 재상이 된 요셉만의 영웅담 같지만, 사실 야곱 가문의 불화와 재화합의 역사 속 또 하나의 주인공은 분명 유다였지요. 질투에 눈먼 형제들이 동생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죽게 하려던 때에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자. 그래도 그 아이는 우리 아우고 우리 살붙이가 아니냐?” 하며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

들에게 팔아넘기게 하여 그의 목숨을 구한 이후로 (37,26-27), 유다는 다른 형제들과는 사뭇 다르게 가족의 생명과 일치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줍니다. 기근 속에 온 가문이 굶주리게 되었는데도 야곱이 막내 벤야민만은 내어주지 못하겠다 버틸 때에 그를 설득한 아들도 유다였는데, 이때 야곱이 맏이 르우벤의 제안은 거절하면서도 (42,37-38) 유다의 간청만은 받아들였던 일화는 유명하지요(43,8-14). 또 요셉 앞에서, 자신들이 겪는 시련이 형제를 팔아넘긴 죄 탓이며 하느님의 정의로운 판결이라 인정하고 고백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준 이도 다름 아닌 유다였습니다(44,16). 마침내 유다가 막내 벤야민을 위해 대신 볼모가 되겠다고 목숨을 걸고 자신을 희생하려 했을 때(44,18-34) 형제들의 배신으로 차갑게 얼어붙었던 요셉의 마음은 눈처럼 녹아내렸고, 훼손되었던 성조 야곱 가문의 일치와 평화가 오롯이 회복되어 구세사 속에 다시 올라로 정초하게 되었지요(45,1-15).

자식을 잃은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깊이 헤아릴 줄 알았던 유일한 아들로써(창세 43,9; 44,30-34) 아버지가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유다의 모습은,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참으로 닮았지요. 예수님에 앞서 대속과 자기희생의 위대한 의미를 알려준 유다야말로 예수님의 참 조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희생은커녕 누군가가 내게 낸 작은 생채기에도 견디기 힘든 요즘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혹여 갈라지고 무너진 관계나 누군가의 잘못으로 벌어진 상처는 없는지 잘 살피고, 내 작은 희생으로 가족과 이웃에게 일치와 화합을 가져오는 또 하나의 유다로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필문**

공감과 이해, 위로를 건네는 육아 에세이 **엄마 일기**

엄마로 만난 세상과 그 안에 담긴 보물

『가톨릭평화신문』 기자로 일하며 두 아이의 엄마가 된 지은이가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 양육하는 과정에서 갖게 된 생각, 느낌, 행동을 기록한 일기다.

이 책은 새로운 생명이 자기 몸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느낀 순간부터 출산, 양육하는 과정의 이야기를 3부로 엮었다. 1부에서는 임신한 순간부터 엄마라는 새로운 세상의 눈으로 보고 느끼고 깨달은 이야기를, 2부에서는 육아휴직을 한 남편과 엄마이며 직장인으로 살아가며 체험한 이야기를, 3부에서는 성장하는 아이들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을, 그리고 아이를 통해 새롭게 바라본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고 진솔하게 담고 있다.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생명의 소중함과 그 생명을 지키는 울타리인 가정 공동체가 처한 현실적 어려움이 고스란히 손에 잡힌다. 그리고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과 그 안에서 신비하게 작용하는 하느님의 사랑, 은총에 대한 감사함이 따뜻하게 마음을 어루만진다. 이 과정을 겪어온 엄마들, 현재 치열하게 이 과정을 겪고 있을 엄마들, 그리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예비 엄마들에게 공감과 이해, 위로가 되는 에세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랑을 받았고 주어야 하는 귀하고 신비한 존재라는 자긍심을 갖게 하는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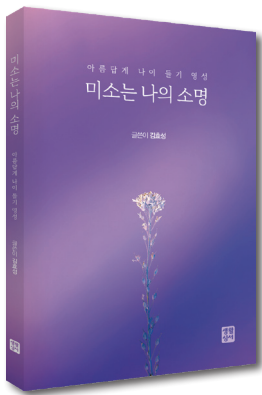


이지혜 지음 | 280면 | 16,000원 | 바오로딸

아름답게 나이 들기 영성 **미소는 나의 소명**

아름다운, 나이 들, 그리고 영성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를 보고 곧장 ‘나이 들’을 떠올리거나 반대로 ‘나이 들’이라는 말을 듣고 바로 ‘아름다움’을 떠올리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거기에 ‘영성’이 더해지면, 나이 든다는 건 아름다운 일이다. “아름답게 나이 들기 영성”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 심리 재교육을 공부한 김효성 수녀가 만난 이들의 모습을 통해 나이 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아름답게 나이 들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가짐을 지녀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수필 같은 영성집이다.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나이 들의 과정을 하느님 안에서 아름답게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이 책은 어려운 이론이나 저자 혼자만의 생각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름답게 나이 들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여 주며 우리 각자가 노년을 기쁘게 준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한다. 나이가 우리 사회가 노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와 노인들만이 겪는 세대 혹은 사회를 위해 해 줄 수 있는 역할을 강조하여 일깨운다. 이 책은 노인들에게만 필요한 책이 아니다. 세상 누구라도 언젠가는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된다. 그러므로 이미 노년에 접어들어 이들은 물론 심지어 청년들에게도 미리부터 자신의 노년을 그려보고 준비하기에 좋은 교보재가 될 것이다.



김효성 지음 | 184면 | 12,000원 | 생활성서사

한국 순교복자 124위 약전

권상문(權相聞) 세바스티아노는 한국 천주교회 창설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양반 집안 출신이다. 교회 창설 주역들의 스승이요 학문으로 이름이 높던 권철신 암브로시오는 그의 큰아버지였으며, 교회 창설에 참여한 권일신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는 그의 아버지였다. 훗날 권상문은 조선의 풍습에 따라 큰아버지의 양자가 되었다.

1769년 경기도 양근에서 태어난 세바스티아노는 일찍부터 집안의 신앙을 이어받아 열심히 신자가 되었다. 또 장성한 뒤에는 교회 활동에 참여하는 한편, 이웃에 사는 윤유일 바오로 형제를 비롯하여 몇몇 교우들과 함께 기도 모임을 갖거나 교리를 연구하였다.

1791년의 신해박해로 생부인 프란치스코 하비에르가 죽임을 당하자 세바스티아노는 마음이 약해져 한때 교회를 멀리하게 되었다. 그러나 주문모 야고보 신부가 조선에 입국한 뒤로는 다시 신앙을 회복하였고, 성사를 받기 위해 한양으로 이주하였다. 이때 그는 동료들과 함께 주 신부를 방문하고 모임을 가졌으며, 얼마 후에는 고향인 양근으로 돌아왔다. 그런 다음 1795년의 을묘박해로 주 신부가 피신 생활을 하게 되자, 3일 동안 주 신부를 자신의 집에 유숙시키면서 교리를 배웠다.

1800년 6월 양근에서 일어난 박해로 권상문 세바스티아노는 동료들과 함께 체포되었다. 이후 그는 양근과 경기 감영을 오가면서 여러 차례 문초와 형벌을 받았지만, 깨끗하게 신앙을 증거하였다. 그런 다음 1801년의 신유박해가 한창일 무렵에 한양으로 압송되어 포도청과 형조에서 문초와 형벌을 받게 되었다.

세바스티아노는 포도청과 형조에서 잠시 마음이 약해진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전에 한 말을 취소하였으며, 아낌없이 가해지는 형벌을 받으며 신앙을 증거하였다. 그러자 형조에서는 그의 최후 진술을 들은 후 다음과 같은 죄목으로 사형을 언도하였다.

“생부 권일신이 사망한 이후에도 천주교에 깊이 빠졌으며, 아울러 요사한 말과 글을 오로지 대중을 미혹시키는 데 이용하였다.”

동시에 형조에서는 ‘권상문을 고향으로 이송하여 처형하라.’고 명령하였다. 세바스티아노의 고향인 양근 주민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따라 그는 1802년 1월 30일(음력 1801년 12월 27일) 양근 형장에서 참수형을 받고 순교하였으니, 당시 그의 나이는 33세였다.



권상문 세바스티아노
(1769~ 1802년)

출처 :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홈페이지



25. 예수님 바라보기 : 가정의 소명 ⑤

“성사헌의 근본 요소인 상호 증여는,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와 맺는 근본적인 계약인 세례의 은총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약혼한 이들은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 서로를 받아들이면서 온전한 자기 증여와 신의, 그리고 생명에 대한 개방성을 약속합니다.” 이 혼인성사가 그 자체로 어떤 ‘도구’나 어떤 ‘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혼인성사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리스도인 부부를 만나러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혼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맺으신 계약을 통하여 당신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표징일 뿐만 아니라 부부의 친교에 그 사랑이 머물게 합니다. 부부는 한 몸이 되어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인간 본성을 취하신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부부애와 가정생활의 기쁨 속에서, 이 세상에서 어린양의 혼인 잔치를 미리 맛보게 하십니다.” (『사랑의 기쁨』, 73항)



함께 가자, 생명의 길로! - 말씀과 함께하는 생태발자국 줄이기

명절 음식 알맞게 준비하기 /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교구 평신도위원회 & 생태환경위원회 제공

대구평신도 원고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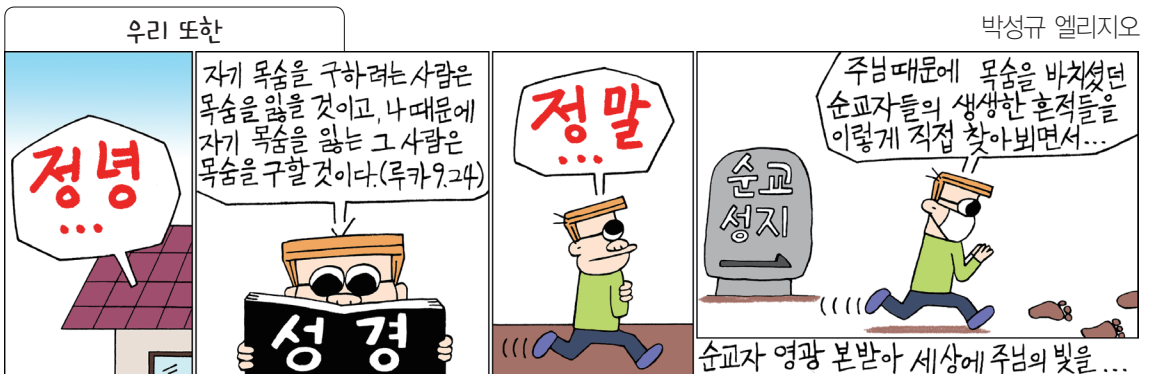
2020/2021,
통권 33호

1. 주제: 코로나19 상황 속 말씀으로 살아가는 나의 체험과 성찰(평신도) / 코로나19 상황 속 말씀으로 본당 공동체 하나되어 극복해나가는 이야기(본당) / 생태환경운동 개인과 가족 실천 사례 / 자유마당 (시, 수필, 여행기 등)
※ 제목, 본당 및 단체명, 이름, 세례명, 사진(최소 3장) 필수
2. 분량: A4 10포인트 2~4장 3. 마감: 10.29(금)까지 메일(dgsamok@daum.net)로 접수
4. 문의: 교구 사목국 250-3057, 편집위원장 (010)3508-5885

말씀의 해 안내지 36호 정답

1. ③ 2. 희망, 부활, 생명 3. 율법으로 유대인들에게 금지된 얌니아 우상들의 패, 전사자들이 부활하리라고 기대했기 때문 4. 성별된 성전

37호(9월 19일)부터 '시서와 지혜서'가 시작됩니다! 중단하신 분들도 다시 시작합시다!



미사 안내

2대리구 교정사목 후원미사	9월 20일(월) 10:30 범여성당	한티순교자 현양후원회 월례미사	9월 25일(토) 11:00 순례자성당
----------------	----------------------	------------------	-----------------------

성소 | 피정

프란치스코전교봉사수녀회 모임

일시: 9.26(일) 14:00

장소: 온라인 줌(Zoom)회의실

대상: 하느님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은

39세 이하 가톨릭 미혼여성

문의: 김엘리사벳 수녀, (010)4732-8247

예수고난봉쇄수녀회 성소 모임

일시: 수시

장소: 청주 예수고난봉쇄수녀회

문의: (043)295-5940

cpnunskorea@catholic.or.kr

한국외방선교회 성소 모임

대상: 해외선교사제를 꿈꾸는 청년

문의: 성소국장, (010)8715-2846

효령하늘집 피정

개인, 단체: 언제나

산내 치유 피정: 9.28(화)~29(수)

치유기도: 매주 수 14:00~16:00

문의: (054)382-0091

교육 | 모집 | 기타

제31회 한국 가톨릭 매스컴대상 공모

부문: 신문·출판 / 영화·TV /

라디오·인터넷 / 교구·수도회

대상: 2020.11.1~2021.10.15 발표 작품

마감: 10.15(금) / www.cbck.or.kr 참조

문의: 사회홍보위원회, (02)460-7626

가톨릭상지대 2022년도 신입생 수시 모집

안동교구에서 운영하는

전국 유일의 가톨릭 전문대학

기간: 9.10(금)~10.4(월) 수시 1차

문의: 교무입학처, (054)851-3021~3

http://ipsi.csj.ac.kr

성심복지의원 무료병원 진료

과목: 치과(무료틀니), 한방,

내과, 정형외과, 피부과, 신경과

대상: 수급자 65세 이하(치과), 노인,

노숙자, 이주노동자, 한부모세대 등

문의: 256-9494

전인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검진

위·대장내시경검사에서 진료까지

당일진료 가능합니다.

검진센터: 670-5959

(09:00~17:30)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질병의 조기발견과 다양한 검진을

통해 건강한 삶을 지키십시오.

1차, 암 검진(암 검진은 예약 필수)

문의: 650-4591(8:00~17:00)

대구파티마병원 기증제대혈은행

제대혈기증은 가장 효과적이고

가치 있는 사랑의 선택입니다.

문의: 959-8883 / 940-7126

http://cord.fatima.or.kr

창작성가 공모 2021. 3. 19. ~ 9. 30.

총 상금 2000만 원 / 대구대교구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주제곡

공모부문: 교회 전통음악 / 가톨릭 생활성가 참가자격: 가톨릭 신자라면 누구나

시상내역: 대상(1명) 500만 원 / 최우수상(2명) 300만 원 / 우수상(2명) 200만 원 / 장려상(5명) 100만 원

문의: 교구 문화홍보국, 250-3046~9 또는 이메일(pr@dgca.or.kr)

* 자세한 사항은 천주교 대구대교구 홈페이지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주제곡 창작성가 공모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만수
예쁜누네성형외과
DR. SUM'S PRETTY EYE PLASTIC SURGERY CENTER

원장 서만수 (주거) 대구 중구 중앙대로 366
눈성형 | 코성형
필러, 보톡스 반월센터빌딩 8층
진료문의: 216-7345

개원 36년
달성피부과

●아토피·여드름·피부재활 전문케어
●보톡스·실리프팅 ●면역강화 수액요법

원장 손재경(다미아노) · 김인주(레지나)
DALSUNG
053)566-4333, 2호선 두류역 3번출구

그랜드 통증의학과
(비수술적인 통증 치료 전문)

허리, 어깨, 무릎 관절통, 스포츠 통증
프롤로 재생 주사, 도수 치료

통증의학전문-원장 정순우 (요셉)
범어네거리 두산위브더제니스상가 3층
☎ 755-5572 (지하철 범어역 8번 출구)

달서점
와이덱스 보청기

前) 대구복음보청기 14년 지점장
덴마크 및 세계 유명 브랜드 취급
즉석 A/S, 청능사/사회복지사
류(다니엘) 053)554-0044
2호선 감삼역(서남시장) 2번 출구 앞

김덕영 성형외과

대구은행 본점 옆 교보생명 건너편
한영아트센터 2층
(053)759-0888

의학박사
전문 의 **김 덕 영** (스테파노)

바른동물의료센터

▶ 365일 24시간 진료
▶ 대학병원 석/박사 원장 진료
▶ 동물병원에 CT 장비 도입
▶ 주차 10대이상 완비
▶ 유튜브 '개알밤' 채널 운영

특화진료
정형외과
심장내과
건강검진
고양이특화
야간응급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삼동 280-5 (이마트 감삼점 맞은편)
대표원장 이세원(무까) 053-571-0075

이시아요양병원

대구시 동구 파계로6길 16(지묘동)
(파군재 삼거리 좌회전 100m)
(053)983-7700

병 원 장 **이 동 구** (마티아)

마스크(의약품용)

KF94(일 반)	100장 30,000원
KF94(세부리 흰색)	100장 35,000원
KF94(세부리 갈라)	100장 40,000원
비말AD(흰색)	100장 10,000원
비말AD(갈라)	100장 12,000원

대표 장 총 화(분도)
분도상사 010-3537-5559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서인석(바오로) 신부
2005년 9월 20일

행사 | 모임

9월 예비신학생 모임

일시: 9.26(일) 14:00
장소: 남산동 신학교
대상: 중1~대학.일반

효성여고 개교 70주년 기념행사

인성제: 10.5(화)
학술제: 10.6(수)
기념식: 10.7(목)
문의: 235-7004 / 235-6937
동문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바오로딸 도예 성물 전시

조정숙 도예가 초대전_순명을 만나다 7
주제: 다시 평화, 은총의 때
일시: 10.9~10.24 / 11:00~20:00
내영혼의글쓰기: 10.5(화 8주 14:00)
문의: 바오로딸, (010)6681-5185

교육 | 모임

대구가톨릭음악원 전공반 모집

모집: 지휘, 시편 성가, 성악, 오르간
문의: 교구 음악원, 255-4847

대가대 평생교육원 수강생 모집

발성과(합창교실/성가교실): 월, 화, 목, 금

성인 피아노교실(디지털): 화, 금
CEO합창단: 수 19:00(가곡과 합창)
장소: 감삼동 평생교육원(용산역 5분)
문의: (010)3512-1565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 화상영어
수강생 모집

대상: 7세~성인 및 실버 세대
수업: 일대일 맞춤형, 기초회화,
여행 및 비즈니스영어
문의: 593-1273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모집

책으로 떠나는 신앙여정, 제대꽃꽂이,
사범꽃꽂이, 연필초상화, 캘리그래피,
정리수납전문가, 문인화, 섬유공예,
오카리나, 우쿨렐레, 장구, 성물도예,
성가반주오르간 / 신청: 254-6115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권민자수녀)

1박 2일: 10.23~24 / 12.11~12
3박 4일: 10.1~4 / 11.25~28
8박 9일: 10.12~20 / 11.9~17
장소: 문산예수마음피정외집
신청: (010)4906-5722 / (031)953-6932

경산시 기부은행 돌봄봉사자 모집

분야: 기부은행 자원봉사자 모집
자격: 경산지역 활동 가능하신 분
문의: 경산시어르신복지센터, 854-1666

성경통독

일시: 매주 수 10:30~16:00(미사 15:00)

장소: 대구성령봉사회관(고령 월막)
차량: 1호선 설화명곡역 2번 출구 9:40
준비물: 성경 / 문의: (010)9045-0191

채용 | 안내

성모자애원마리아의집 직원 채용

업무: 생활재활교사(장애인거주시설)
자격: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위치: 포항시 남구
문의: 054)272-0586
<http://www.mariane.or.kr>

군위묘원 추석연휴_일방통행 안내

추석 당일은 많은 성묘객으로 인해
교통혼잡이 예상됩니다. 추석을 전
후해서 성묘를 하여 주시고, 성묘
후 귀가 시, 일방통행 도로를 반드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위묘원 봉안당 입실 시 협조 안내

출입 시, 손소독과 마스크 착용 필수
방명록 작성 및 발열 검사 적극 협조
실내 봉안당 한 호실 내 2가구 이상
입실 금지 /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
문의: 교구 관리과, 250-3003

2021년 대구주보 광고 추가 접수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교적 증명서,
본당 신부님 추천서
접수: 교구 문화홍보국, 250-3048

대구가톨릭평화방송
일일메트충판
소금벌좌욕기 대구충판

파크골프
초급자, 중급자, 상급자, 선수용

(주)매일프라자
김흥은(요셉) 010-9804-8008
유용단지소 45 전사판 1층 239호

원룸,투룸 **용달이사**

한역기(바오로)
010-3514-3855

수성구 761-2484 서 구 566-2484
달서구 637-2484 북 구 313-2484

진심을 담아 진료합니다
진심내과 의원
의협박사 손지현(아베스)

심장검진 | 심장초음파

대구시 중구 달구벌대로 1999 (동산동) 척담병원 3층
청리연택(신남)역 9번출구 진로문의 053-422-3334

KGB 포장이사서비스

꼼꼼히 딱 하루 한집만!!
내 집처리

무료전화 080-053-1000

김진수(마르티노) 010-7484-3355

노인성 질환 전문요양
매일미사 봉헌, 영성치료

(재)대구구천주교유지재단
성요셉요양병원

병원장 김명섭(그레고리오) 신부
TEL 053)615-4871

25년 전통
천주교 결혼정보회사
거들 짝

초혼, 재혼, 노블레스

전국 대표전화 1566-6205
wedmate.co.kr

37년 전통의 숙련된 기술
한독보청기

보조금 지원 무료 보청기
053)257-8500 / 253-7476

방인수 (프란치스코)
중앙네거리--광병원 사이 지하도 입구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병원

척추.어깨.무릎
참조은병원

원장 배광주(레오) 원장 송대홍(요한)
T. 630-8000 송현역 2번 출구